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부활신앙과 선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

(고전 15:14)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선교사 환송 예배

일시: 2023년 4월 19일 수요일예배시

설교: 송요한 선교사

봄맞이 교회 대청소

일시: 2023년 4월 22일(토) 10:00~13:00

2023 모임순장 야외영성훈련

일시: 2023년 4월 27일(목)

장소: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 외

장애인 주일 일자 변경

2023년 4월 23일(주일)-->5월 21일(주일)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개신교 최초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는 조선 민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민족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든지 고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나라에 왜 오셨을까요? 또한 1년 365일 중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을까요? 그들은 부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설립 70주년 선교대회가 부활주일이 지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충현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마음껏 선교에 대해서 도전 받고 충현교회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전진기지로서 사명을 한층 더 깊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선교대회 선교주일(오늘) 일정

- 교구 및 부서 사역자 방문: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구 및 부서에 방문하여 사역을 소개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 외국인 의료선교의 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외선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문인선교부에서 무료진료를 진행합니다.
- 현지인사역자 지원 지명헌금: 선교대회 기간동안 초청되어 온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 지명헌금을 진행하며 모금된 헌금은 19일 수요일 선교사 환송 예배 중에 전달합니다.
- 선교주일 특별찬양예배: 현지인 사역자의 간증과 말씀, 그리고 연합 찬양대 및 오케스트라, 선교위원회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찬양과 위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선교박람회: 충현교회가 그동안 사역했던 국가별로 부스를 설치하여 사역 현황과 기도 제목 등을 소개하고, 현지에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특별히 미디어 부스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하여 충현교회 및 12개 선교지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게더타운을 운영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6면 참조

2023년 제1차 학습, 입교, 세례식 (성인) 안내

날짜	시간	학습교육/담당자	장소	세례,입교 교육/담당자	장소
4월 16일(주일)	12:10~12:50	죄, 예수님, 예배 (위안복 목사)	제1교육관 602호(6층)	구원, 성령, 교회 (전영재 목사)	제1교육관 501호(5층)
4월 23일(주일)		성도의 생활, 신조 (위안복 목사)		종말, 재림, 성례 (전영재 목사)	
	추후공지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문답(교구별, 부서별 장소)	
4월 30일(주일)	주일찬양예배	학습, 입교,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예배 2:50분 전까지 입실 바람			

지난 주일(4월 9일) 설교 되새기기

부활로 예수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8-20)



부활에는 세 가지 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행 2:23-24) 사도 베드로는 부활에 관하여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간략하면서도 탁월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대로 이루어졌으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있으신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위,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위임하신 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재림하시기에,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당시 철학의 도시였던 아덴(아테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행 17:31-32)”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천하 만물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경계를 정하신 주권자이심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며, 심판의 날을 위하여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나 로마처럼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목회하게 될 경우 바울의 설교주제는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행 19:8),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행 28:30-31)” 바울이 강론했던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으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심을 믿으며, 그 분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읽은 “죽음이 삶에게(The End of the Christian Life)”라는 책의 저자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던 5년 내내 노숙자 사역을 하신 분인데, 30대 후반 불치에 가까운 병(다발성 골수종)을 앓게 되었습니다. 학자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꿈쩍도 못하게 된 ‘스울’ 같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한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음을 저자는 고백합니다. “영혼에 열정을 다해 영생을 사모하라 동시에 죽음을 매일 눈앞에 두라”는 중세 수도사들의 원칙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스울에 묶인 듯한 그 때에도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는 선교명령입니다. 부활은 선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 28:1)”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하신 후 첫날 되는 새벽에 무덤을 보러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5절)”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자 군병들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가 군인들을 매수했다는 사실도 함께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자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6-17절)” 우리 성경은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하는 자”가 있다 번역하지만,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주저하는 자가 있더라’, 혹은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가 있더라’ 정도가 될 듯합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과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교명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보았으니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교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정적인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는 사역이 선교이기에 선교는 부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충현교회의 70년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가장 감사할 요소를 두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선교운동을 일으킨 점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인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훈련하여 세운 점입니다. 현지인 지도자들이 각 나라에서 교회를 이끄는 전략적 선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한 모든 주님의 일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열 두 명의 현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일주일동안 그 분들과 함께 선교에 관한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준비팀에서 선교대회를 계획하고 요청했을 때, 저는 “좋습니다! 단, 부활주일 끝나고 바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활과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최고의 정점에서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가서 시시하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제자 삼으라.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제자들을 만들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신 ‘제자’가 많다는 사실은 제가 깊이 사모하는 부분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자라나서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처럼 ‘오면 가르쳐주겠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널리 전하도록 힘쓰는 이들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선교와 긴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이가 아니라 아직도 믿음에 주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를 통해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모두 이번 주 시작되는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이 더욱 참되고 복됨을 확인하는 시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Make Disciples of Christ through Resurrection

(Matthew 28:8-20)

Rev. Kyu Sam Han

Three big messages are contained in the resurrection. The first message is, as we all know well, the fact that Jesus triumphed over death.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deliberate plan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Ac 2:23-24). The Apostle Peter expressed briefly and outstandingly the resurrection as 'God freed him from the agony of death.' The Bible says the passion and death of Jesus were accomplished according to God's set purpose, and because Jesus could not be tied to death, God freed him from death. This is the most fundamental message about Jesus' resurrection.

The second message about the resurrection is related to where the resurrected Jesus is and what he is doing. The Bible says the resurrected Jesus is seated on the heavenly throne, that is, at the right hand of God. Since Jesus reigns from the throne which was entirely entrusted to him by God and returns, Jesus means 'Jesus who shall come again'. Jesus' disciples preached Jesus' resurrection whenever opportunities were given to them. According to Acts 17, Paul explained God to people in Athens, a city of philosophy at that time. "For he has set a day when he will judge the world with justice by the man he has appointed. He has given proof of this to everyone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When they heard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of them sneered, but others said, 'We want to hear you again on this subject.'" (Ac 17:31-32). Paul talked clearly God wants to give us life, breath, and everything in the world, and that He is the sovereign Lord who sets the boundaries of the world. Above all, he proclaimed God is the judge, and that the resurrection is prepared for the Day of Judgment. However, when he ministered continuously in same place like Ephesus and Rome, the subject of Paul's sermons changed from resurrection to the Heavenly Kingdom of God. "Paul entered the synagogue and spoke boldly there for three months, arguing persuasively about the kingdom of God." (Ac 19:8), "For two whole years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He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Ac 28:30-31). The Kingdom of God which Paul taught implies the rule of God. If you believe in God's sovereign rule, your faith will be different. You believe in Jesus who was not swayed by small things, overcame the power of death, and is reigning from the throne of heaven, and also you can go toward the resurrection faith which leads you to live under His sovereignty. The author of the book titled *The End of the Christian Life*, which I read during the passion week, continued homeless care ministries for 5 years while he was studying to receive doctoral degree and came to be sick with incurable disease (Multiple Myeloma) in his thirties. The author confesses a deadlocked situation like 'Sheol'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o become a scholar was the process of being transferred to where the presence of God is. I believe that the principle of Medieval monks the author mentioned, 'Long for the eternal life with all your soul and at the same time keep death in front of your eyes every day,' is just the way of life that God-ruled people should observe. I hope you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at even when you seem to be tied to Sheol, you will have resurrection faith through which you can confess following the Lord.

The third message of the resurrection is the mission command. The resurrec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mission.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Mt 28:1). Women went to see the tomb on the first day after Jesus' rest, met and worshipped the resurrected Jesus. "So the soldiers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instructed. And this story has been widely circulated among the Jews to this very day." (v.15). Jewish leaders including the high priest

Caiaphas bribed the soldiers to cover up the resurrection of Jesus and let them spread the news that Jesus' disciples stole Jesus' body. However, the fact that Caiaphas bribed the soldiers also spread together. It's because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not only historical fact but also a telltale truth. The Bible records in 1 Corinthians 15 those who met the resurrected Jesus. "Then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doubted." (vs 16-17). Our Bible translates when eleven disciples met Jesus, 'some doubted,' however, if we keep the meaning of the original language intact, it is likely to be 'There is some one who is hesitant,' or 'There is still a man of little faith.'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v.18) Jesus gave the mission command to those who are hesitant and those who have little faith. Jesus ordered that now, you saw the resurrection, so that you do not hesitate and become the one who joins the mission work. It's because the definitive victory of the resurrected Jesus is contained in the mission work. Moreover, since the mission work is the work performed by all the power of heaven and earth that Jesus has, the mission work is related to resurrection.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ation of our church, the mission conference will begin on Thursday this week. I cannot say too much how happy I am. Preparing for the mission conference and looking back to seventy-year history of mission works of Choong Hyun Church from the personal perspective, I chose two constituents for which I am most thankful. The first one is to have ignited a mission movement in Korea, focusing on the mission for North Korea. I thought it was truly grateful. The second one is to have discovered, trained, and established local leaders. I am convinced that God is pleased with the strategic mission that local leaders lead churches in their own countries. I am really grateful to all the Lord's workers who have worked hard and dedicated themselves to this ministry. In this mission conference, we are going to invite 12 local leaders to have precious time with them for mission works for one week. When the preparation team planned and requested the mission conference, I replied, "That's good! But, let's do it immediately after Easter Sunday." It's because resurrection and mission are in the relationship which is not possible to be disconnected despite our efforts. In Matthew, Jesus at the highest apex after his resurrection gave the challenge of the mission. He commanded to us, 'Go but do not preach the gospel fruitlessly, make disciples. Let the disciples be baptized and keep them to do what has been commanded to you, and create disciples who achieve growth, maturity, and sanctification'. What I deeply adore in the tradition of our church is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disciples' who have led a life of faith for a long. There are lots of cases that those who grew up in the church schools become ordained deacons, elders and senior deaconesses. It is an important asset of our church. The mission is the same. Unlike Judaism arrogantly saying, "I will teach you when I come," we must directly go and preach the gospel and make disciples. It is because of the command of the resurrected Jesus. Jesus promised to be with those who strive to preach Jesus more widely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at's why the message of resurrection cannot but be closely related to the mission. I will summarize my words. The Mission is the commission given not to those who have perfect faith but to those who still have the hesitation in their faith. He proclaimed that they would have the confidence in faith through the mission works.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ll of our Choong Hyun family who has received the message of resurrection will have time to confirm the resurrection faith given to us is more truthful and blessed through the mission conference beginning this week.

영역·이울의



2023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여 험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다. 기도할 때 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그려보며 내 죄를 찾아본다. 그런 사랑이 어디 또 있을까? 가슴이 아프고 고개가 숙여진다.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성도였는지 돌아볼 때 부끄럽기만 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기 바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기적이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 받기만을 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척 살아온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으며 회개한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눈물로 회개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에 나도 가롯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생각하며 늘 영적으로 깨어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개는 유다와 같은 뉘우침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연약함과 정치적인 약점으로 양심의 의로운 증거를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으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주님!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3교구 이미지 권사

심문 현장에서 시작된 고난주간의 여정은 어느 해보다 깊고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거절 당해본 경험은 오랫동안 큰 슬픔의 상처로 기억된다. 완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배신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수십억의 인간들이 그분을 거절한다.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인물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묵도하게 하신 동시에 거절당하신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처절하고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다.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너 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의 핏자국, '내 보혈만 의지하고 따르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한없는 평안과 감격이 충만했다. 매일 쉴새 없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 사랑의 십자가 붙잡고 일어선다. 주님께서 주신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미 성취하신 승리를 완성하시려 하늘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곧'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4교구 정승현 집사

올해도 변함없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날 형식적으로 참석했던 날이 있었기에 주님의 수난,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 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성전 모독죄로 고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지신 주님 나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낸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눈물과 회한뿐임을 고백합니다. 고난과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즉위식을 통해 선한증언을 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애통한 심정으로 자복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유다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오래한 나는 어떻게 생각해 봤는데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낍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통회 자복하며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속에서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진정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7교구 양승찬 안수집사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이유가 내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 마음이 멍멍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나의 왕,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며 열방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8교구 이명숙 집사

교회 설립 70주년 청년 부흥의 날

첫 번째 연합 집회 (빌더스 주관)

여러 공동체가 학제 개편을 맞이하고 신설된 상황에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학생회 임원으로서 기대보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는 만큼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또한 불안함에 가득 긴장해 있는 각 부서의 분위기가 이번의 기회로 좀 더 부드러워 지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각 부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성을 다지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 6월에도 예정된 연합집회를 통하여 3개의 부서가 서로를 사랑으로 축복하며 화합할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빌더스 전하겸 형제 (청년1부)

세 부서의 연합예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는 좁은 집회실, 어수선한 분위기, 부족한 팀모임 시간 등 온갖 현실적인 걱정거리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설교 중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고픈 회중들에게 현실적으로 먹일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의심하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연합예배를 바라보던 제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를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셨는데 그 사실을 잊고 내 생각으로 한계 짓고 걱정하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배 시간 내내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자는 말을 매일 하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연합예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제 마음 준비시키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충현의 차세대들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메이커스 박보미 자매 (청년2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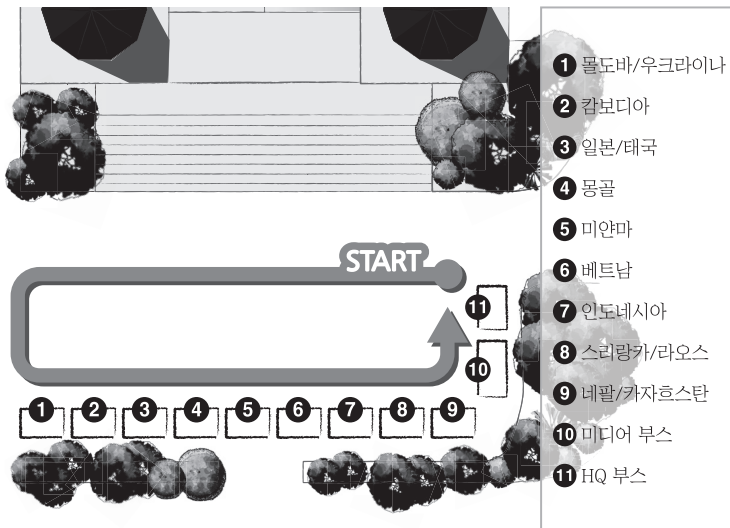


2023년 4월 2일. 오후 2시. 제2교육관 4층. 충현교회 70주년을 맞아 청년1부 주관으로 차세대 연합집회가 있었다. 청년부 생활을 오래 했지만, 부서가 이렇게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부서 중 가장 막내 부서인 청년 1부의 헌신으로, 이 연합집회의 서막이 열렸다. 제2교육관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집회에 참석하려는 청년들이 많았고, 4층에는 420여 좌석이 첫 연합집회에 대한 호기심 가득한 청년들로 꽉 찼다. 의자가 부족해서 다른 층에서 더 가져올 정도로 말이다.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운 청년1부 찬양팀의 인도는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고, 부서별로 따로 앉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강사로 초청받으신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오병이어'에 관한 전하셨고, 말씀 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부서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하였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우리 차세대를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로 울부짖으며 찬양하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며,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는 마음을 주셨고, 나도 그들과 함께 크게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셨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심에 감사했다. 그리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70주년 이후 또 충현교회의 차세대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들로 귀하게 세워지길 기도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험난하고 악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했다. 큰 무리의 굶주림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오병이어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이 차세대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 온 세계에 예수님이 증거되며 복음의 열매 열두 광주리를 남기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브릿지 이지훈 형제

선교 EXPO | 국가별 부스 위치 및 체험 안내

선교대회 MAP



임시 지명 헌금 계좌

본 선교 대회 기간(13~19일) 모금된 지명 헌금은 초청된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재단)충현교회유지재단(식당)
하나 102-069989-01004

체험 안내

• 국가별 스탬프 투어 하기

- 1 HQ 부스(11)에서 여권 발급 받기
- 2 원하는 국가 부스(1 ~ 9)를 체험하고 여권에 스탬프 받기 (최소 3개국 이상)
- 3 HQ 부스(11)로 다시 돌아와 증정품 수령

• 선교 헌신카드 작성 성도 증정품 증정

- 1 원하는 국가 부스(1 ~ 9)에서 선교 헌신카드 작성
- 2 HQ 부스(11)에서 헌신카드 제출 후 증정품 수령

• 내게 맞는 선교지 찾기 / 게더타운 투어

- 1 미디어 부스(10)에서 '내게 맞는 선교지 찾기' 프로그램으로 선교국가 탐색하기
- 2 미디어 부스(10)에서 게더타운 접속 후 충현교회 & 국가별 교회 체험하기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기독교 뮤지컬 초청 공연

충현교회설립 70주년 행사로 기독교 뮤지컬 초청공연을 합니다. 초청하는 극단 <광야 미니스트리>는 기독교 뮤지컬만 창작하고 공연하는 전문 극단으로서,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매개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연되는 작품은 <요한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 2,3장의 '일곱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입니다. 교회(에클레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아도나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주된 스토리는 '에클레시아와 파라'(파라클레토스-성령)가 일곱 도시를 여행하며 '아도나이'왕자가 곧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공연 시간은 120분이며 초등부(4학년)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의미의 행사로 준비하는 뮤지컬을 통해 충현교회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다음세대와 이웃을 초청하는 기회로까지 활용되길 소망해 봅니다.

• 공연일정

회차	공연일시	주력대상	비고
1회	5/26(금) 오후5시	1~11교구	
2회	5/27(토) 오후1시	교육위 (초중고), 차세위 (청3), 그루터기, 사랑부	부서 초청잔치 연계 임시 예꿈교실 운영
3회	5/27(토) 오후5시	차세위 (청1, 청2, 브릿지, 신가부), 새가족위, 에바다부	부서 초청잔치 연계

• 교환권(티켓) 구매

가격: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정가 4만원)

단체판매: 4/16(일)~4/29(토) 소속 교구/부서 담당자 통해 구입

개별판매(교환): 5/14(일)~5/21(일) 판매창구 개설 예정(갈릴리홀 앞)

* 제한된 관람석으로 인해 구매 불가 혹은 원하시는 회차의 관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연 당일 현장 티켓판매는 불가

*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

* 교환권 구매 후 해당 공연 시작 1시간 전 창구에서 좌석티켓으로 선착순 교환

* 교환권/좌석티켓 환불은 불가, 양도는 가능

* 청소년 교환권은 초/중/고등부에서만 판매하며 성인은 사용 불가

문의) 최은빈 집사 010-9799-1357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5월 6일(토) 독서감상문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1. 독서감상문대회

-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감상문 분량 : 예꿈도서관 내 신앙서적/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 유년부: 닉 아저씨처럼 기도해봐(출판사: 두란노Kidz)
 - 초등부: 벤허1, 2 (출판사: 몽당연필)
 - 중고등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출판사: IVP)

2. 글짓기대회 (시, 산문)

- 주제 :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 작품제목 : 신앙생활에 관련 자유롭게 정함
- 참가대상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글짓기, 시 분량 : A4 한 장 내외 (당일 시행)

3. 그림그리기대회

- 참가대상 :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그림 규격 및 양식 : 8절 캔트지 70년 운영위원회 제공
- 개별준비 : 그림도구, 크레파스, 물감, 붓, 판넬, 돗자리 등
- 접수기간 : 2023년 4월 9일-4월 30일
- 접수방법 : 제1교육관 602호 예꿈교사실 (최향숙, 전해숙)
- 개최일시 : 5월 6일 (토) 10:00-14:00 (예꿈교사실 602호)
- 장소 : 제1교육관 6층 502호 하늘정원, 본당 앞, 교회 뜰
- 심사기준 : 신앙관, 표현력, 조화력, 창의성, 노력도
- 심사결과발표 : 2023년 5월 14일 주간충현
 - 참가 어린이에게는 빵과 음료제공 -
- 시상내역 : 대상 10명, 최우수상 10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30명
- 문의 : 예꿈 양육부 김동석 집사(010 3209 5131)

※ 각 부서에 원하는 대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전시관 및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위한

충현 과거 역사 자료 수집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 전시관과 디지털 역사관(아카이브)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전시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대여해 주시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집자료: 1. 북한선교 관련 사진(최소 근접한 날짜, 행사명, 장소, 인물명 등을 사진 뒷면에 명기)
2. 북한선교 관련 책, 브로슈어(안내문 등)
3. 교회 일반 사진(최소 근접한 날짜, 행사명, 장소, 인물명 등을 사진 뒷면에 명기)
4. 충현10년사와 충현20년사 원본

수집기간: 4월 23일(주일)까지

자료접수: 70년사 편찬위원회 (선교관3층 303호) 담당: 정인선 권사 010-3800-2240

※ 원본 자료는 스캔 작업 후에 반드시 돌려 드립니다.

제3기 자녀를 위한 기도학교 개설

엄마(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몸소 지켜나가며, 언약 안에 서는 견고한 미래세대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학교, 사회, 교회학교, 친구들까지 기도를 확장해 나갑니다.

기간: 5월, 4주간 (3일, 10일, 17일, 24일)

시간: 수요일 오전 9:20 ~ 10:45

장소: 엠마오홀

교재: '기도하는 엄마들'-프리셋트

등록 절차: 충현기도실에서 신청서 작성(신청마감: 4/23)

등록비: 10,000원

문의: 황경분권사 010-2013-5006



3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0명)

김수빈 김순애 김용호 김일권 김정호 김호순 동용숙 박태선 손천수 오세탁 오호진
유래일 유주현 윤경희 윤보영 이광수 이은선 임현철 임희영 조호용

교육위원회(4명)

김주하 이원준 임예준 조은서

차세대위원회(11명)

강성현 김혜린 민주현 박유진 신선우 양승규 이경찬 이덕현 이동일 이아인 이우민

총회 '제 60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일 시: 5월 8일 (월) ~ 5월 10일 (수) 장 소: 충현교회당 전체강의4(5/9): 한규삼 목사

2023년 제 1회 CMTC 훈련 1차

일 시: 2023년 4월 23일(주일) 16:30~18:30 장 소: 갈릴리홀

4월 권사회 전체 월례회

일 시: 4월 19일(수) 12:00 본당 및 실시간 영상

2023년 각 위원회 및 산하부서 상반기 정기 감사(2022년 7월~12월분)

제출시기: 3월 5일~4월 30일

제출서류: 1)2022년도 조직도, 2)2022년도 사업계획서(월별 예산서 포함),
3)2022년도 시산표(7월~12월), 4)2022년도 현금출납부(7월~12월),
5)2022년도 영수증(7월~12월), 6)2022년도 예산청원 정산서(7월~12월)

제출장소: 감사위원회 701호(동쪽 엘리베이터 사용)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713	형소이	영아부	
2	0714	장하영	영아부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721	고에스터	기본과정	
2	0722	오예영	고등부	
3	0723	오예진	중등부	
4	0724	오예나	초등부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719	박영근	기본과정	조영자
2	0720	박지선	기본과정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0725	이승주	청년1부	곽계자

출산

1. 장윤호 집사, 김지선 집사(신혼가정부) / 출산, 딸, 4월 5일

결혼

1. 이주승 군(이광수 성도·함봉애 집사의 아들, 10교구)과 송예원 양(송천호 씨·양 지연 씨의 딸) / 22일(토) 11:00 라온제나분당 8층 플로렌스홀
2. 하주안 군(김정수 권사의 아들, 6교구)과 서민지 양(서민수 씨·김진은 씨의 딸) / 22일(토) 12:30 선운각(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73길 223)
3. 김동혁 군(서영숙 타교성도의 아들)과 노미소 양(노영호 성도·전숙영 권사의 딸, 8교구) / 22일(토) 16:00 제이오스테일 2층 티파니홀

별세

1. 김동용 타교성도(허정에 성도의 남편, 10교구) / 5일 별세, 8일 장례
2. 김영주 성도(손신자 성도의 남편·김성희 집사의 부친, 7교구) / 7일 별세, 9일 장례

예배 담당(4/19~4/23)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4/19	수요 I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요 21:18-19) 송요한 목사	강성은	한홍연
4/21	금요집회	‘가진 것’이 자랑이 되려면 (롬 2:17-29) 한규삼 담임목사	김승래	
4/23	주일 I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 (대상 29:17-19) 한규삼 담임목사	권순동	백봉선
	주일 II		권혁근	박재현
	주일 III		윤준식	이창희
	주일찬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삼상 16:6-13) 김상래 목사	박요셉	이수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4/17~4/23)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7(월)	윤준식/정순규	민 14:26-45	5교구
18(화)	한규삼/박성철	민 15:1-21	전교인
19(수)	박성덕/황한수	민 15:22-41	전교인
20(목)	김주한/이영남	민 16:1-15	11교구
21(금)	박동진/홍순혁	민 16:16-35	2교구
22(토)	이다현/이다현	민 16:36-50	전교인
23(주)	김승래/김승래	민 17:1-13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 집 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화요집회 강사 : 권혁근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7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12:20~13:30(에스라) 12:40~13:40(이블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충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충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증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전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충현복지재단성서이사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종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아멘찬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찬양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벨렐찬양대장	홍승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준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찬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제자교육훈련부장	이석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2교구 선교위원장	강성은 11교구 박동진 2교구 전영재 10교구 신경철 고등부 박성덕 청년2부	김주한 11교구 문진호 3교구 박영환 6교구 임진실 초등부 권순동 청년3부	이성환 12교구 정석훈 8교구 위안복 4교구 김승래 신혼가정부 이다현 중등부	권혁근 7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윤준식 5교구 배진현 홍직
----------------------	---	--	---	--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이정은 11교구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협력선교사

강기열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생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형화